

## 農村主婦들의 經濟活動과 育兒活動에 관한 研究\*

李 殷 珍

研究員, 農村社會研究室

- I. 問題의 提起
- II. 研究方法
- III. 研究結果
- IV. 結論

### I. 問題의 提起

產業化 및 都市化에 따른 離農現象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離農現象이 農村社會 내부의 労動力 구조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에 대해서는 연구된 것이 별로 없다. 농촌의 주부들은 전통적으로 家事を 돌보고 아이를 키우는 일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농촌의 労動力 구조의 변화는 농촌 주부들에게 경제활동을 수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농촌 주부들의 労動力 배분의 변화는 농수산부의 農家經濟調查報告와 농촌진흥청의 1日生活時間調查에 잘 나타나 있다(表1 및 表2).

즉 농가경제조사에 의하면 1년에 남녀별로 농업노동에 투하하는 비율이 1963년에는 65.8%대 34.2%이었던 것이 1979년에는 52.3%대 47.7%가 되었다. 이는 농업 労動力 中 여자의 비중이

表 1 男女別 農家勞動投下時間의 變化\*(실제시간)

구분 년도	남자		여자	
	시간(년간)	구성비	시간(년간)	구성비
1963	2,008.60	65.8%	1,044.18	34.2%
1965	2,004.22	67.9%	946.42	32.1%
1970	1,554.28	62.5%	934.06	37.5%
1975	1,219.16	61.7%	756.90	38.3%
1979	1,099.32	52.3%	1,004.28	47.7%

\* 농수산부, 「농가경제조사 결과보고」, 1980, p. 84와 농수산부, 「농가경제조사 결과보고」, 1975, p. 84에 나온 환산시간을 1975년도 남·녀별 실제시간을 환산시간으로 나눈 1.07과 1.33으로(농수산부, 「농가노동투하량분석」, 1977, p. 18과 p. 58) 곱하여 실제시간을 산출하였음.

表 2 農村主婦의 1日 生活時間變化

구분 년도	1966 <sup>1)</sup>		1980 <sup>2)</sup>	
농번기				
농업노동	5시간 23분		9시간 46분	
가사노동 (가족시중)	7시간 56분 (1시간 02분)		4시간 28분	
농한기				
농업노동	1시간 31분		1시간 13분	
가사노동 (가족시중)	9시간 37분 (1시간 22분)		6시간 51분	

1) 농촌진흥청, 「농가주부의 생활시간 분석」 1966, p. 20.

2) 농촌진흥청, 「농가생활시간표본조사」, 1981(「농민신문」, 1981. 3. 23. 字에서 再引用).

커진다는 것 외에도 여성의 역할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男子는 農家當年間 勞動投入時間이 1963년에 2,008.6시간이던 것이 매년 줄어들어 1979년에는 1,099.3시간을 투입하고 있었다. 그러나 女子는 1963년에 1,044.18시간을 투입한 이후 1975년 756.9시간

\* 本論文은 美國人口協會의 지원으로 진행중인 “農家水準에서의 人口學的, 經濟的, 技術的 要因의 相互作用研究”에서 수집된 자료를 이용하여 쓴 것이다.

을 투입할 때까지 매년 줄어들다가 다시 늘어나 1979년에는 1,004.28시간을 투입함으로써 1963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상승했다.<sup>1</sup> 또한 농촌진흥청의 조사에 의하면 농번기 때 농촌 주부의 1일 生活時間 중 1966년에는 5시간 23분을 농사 일에 할당하였으나 1980년에는 4시간 23분이 늘어난 9시간 46분을 농사일에 투입하고 있다. 반면에 家事勞動은 1966년에 7시간 56분 투입하다가 1980년에는 3시간 28분이나 줄어든 4시간 28분을 투입하고 있었다.<sup>2</sup>

農村의 勞動力 移動이 결과적으로 농촌주부들의 경제활동을 증가시키고 家事活動은 감소시킨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농촌 주부의 노동력 배분의 변화는 모든 농가에 똑같이 파급된 것이 아니라 농가나 주부의 특성에 따라 差別的으로 파급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본논문은 이러한 노동력 배분의 변화에 따른 差別要因과 각 要因들의 영향력의 정도를 밝힐 채 농촌主婦들의役割構造를 이해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 II. 研究方法

### 1. 標本

1980년 11월 24일부터 1980년 12월 21일 사이에 전국의 96개 부락에 거주하는 1,114명의 부인을 대상으로 면접을 통하여 자료가 수집되었다.<sup>3</sup> 농수산부가 1977년에 農家經濟調査를 위하여 선정한 225개 마을의 3,375가구가 표본의 母集團이 되었다. 이들 모집단에서 다시 농수산부가 행한 것과 똑같은 표본추출 절차를 거쳐 본조사의 표본이 추출되었다.<sup>4</sup>

<表3>에 의하면 본조사는 1975년 簡易農業セン서스나 農家經濟調査 標本家口보다 경지규모가

表 3 본조사농가의 耕地規模比較

경지규모	구 分	1975 <sup>1)</sup> 간이농업 센서스	1979 <sup>2)</sup> 농 가 경제조사	1980 본 조 사
	0.5 정보미만	30.2%	21.9%	22.4%
0.5 ~ 1.0	36.3%	36.4%	35.1%	
1.0 ~ 1.5	18.9%	24.0%	22.3%	
1.5 ~ 2.0	8.2%	11.1%	10.9%	
2.0 정보이상	6.5%	6.6%	9.3%	

1) 1단보미만 농가, 임금농업 노동가구, 無耕地農家를 제외한 구성비임(농수산부, 「간이농업 센서스」, 1975, p.2).

2) 농수산부, 「농가경제조사결과보고」, 1980, p.46.

表 4 農家番號別 調査比率

농 가 번 호	조사비율(유효표본/총대상농가)
1~3호	83.7%
4~6호	78.8%
7~9호	79.9%
10~12호	76.7%
13~16호	67.2%

약간 큰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는 農家經濟調査家口 1,442家口를 대상으로 調査를 하였으나 ① 1977년 이후 계속 거주치 않은 216가구 ② 면접 못한 90家口 ③ 편집 및 符號化時에 버려진 22가구를 제외시킴으로써 나온 차이인 것으로 생각된다. 조사를 설계할 때 1975년의 農業센서스結果에 비추어 1979년의 農家經濟調査 대상농가의 경지 규모가 많은 경향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本調查에서는 그 誤差를 줄이기 위해 호당 평균 경지 규모가 적은 마을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였으나 (1,442가구), 그후에 누락된 가구(328가구)들이 대부분 경지 규모가 적은 가구들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1979년의 農가경제 조사대상가구 보다 평균 경지 규모가 높게 나타났다.

농수산부의 農가경제 조사에서는 마을별로, 경지규모별로 農家番號를 매기고 있다. 즉 경지 규모가 큰 농가부터 1, 2, 3……의 숫자를 부여하여 한 마을에는 1호부터 16호 농가까지 분포되어 있다. 번호별로 조사비율을 보면 농가번호가 클수록 조사율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경지규

表 5 幼兒數別 家口의 비율

家 幼 兒 口 當 數	實 數	구 성 비	集 團 區 分
0	790	71%	⇒집단 B
1	210	19%	} 집단 A (324가구)
2	97	9%	
3	17	2%	

모가 적은 농가는 최종분석에 사용하는 표본에서 많이 제외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표본 자체의 制約點을 감안하면서 본논문의 분석결과를 이해하는 것이 유익할 것이다.

家事活動의 부담 중에서도 育兒活動은 기계로 대치될 수도 없는 농가주부들만의 고유한 영역이다. 그러나 育兒活動은 幼兒가 있을 경우에만 그活動이 발생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育兒의 對象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集團을 나누어 각 集團內에서 主婦들의 活動을 變異를 결정하는 要因이 무엇인가를 고찰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본연구에서는 1~5세 사이의 子女와 같이 동거하는 부인들을 “集團A”라 하고 集團A에 속하지 않은 부인들을 “集團B”로 규정하였다. 1~5세의 아이들은 어머니에게 직접적인 육체적 의존을 하게 된다. 물론 6세 이상의 아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농촌에서는 일찍부터 집안내 심부름이나 아이돌보는 일을 시작하여 의존의 정도가 낮다(Brandt 1971, p. 116).

본조사의 표본 중 幼兒가 없는 가구는 71%에 해당하고 나머지 29%만이 유아와 동거하고 있었다. 全體的인 幼兒負擔은 가구당 평균 0.4인으로 나타났으며 유아부담이 있는 集團A의 가구당 평균 유아부담은 1.4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 2. 從屬變數

본연구에서는 주부들의 經濟活動性向과 育兒活動性向을 측정하기 위한 지수를 새로이 구성

하였다. 먼저 경제활동성향 지수는 ① 첫 결혼 이후 현재까지 경제 활동에 참여한 경력 ② 조사前週의 노동시간 ③ 조사 前日의 경제활동을 고려하였다.

경제 활동성향지수 =

$$\left( \frac{\text{결혼후 농업종사경력(年)} + \text{결혼후 취업경력(年)}}{\text{결혼기간(年)} + \text{결혼기간(年)}} + \frac{\text{조사前週의 노동시간}}{100^*} + \frac{\text{조사前日의 경제활동}}{3} \right) \times 25$$

\* 1주일은 24시간×7일=168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조사대상자들의 週當노동시간 분포를 고려하여 임의로 100으로 나누었음.

결혼후의 취업경력은 농사일과 돈버는 일로 구분하여 농사일은 ‘결혼후 農業從事經歷’에, 돈버는 일은 ‘결혼후 就業經歷’에 포함시켰다. 또한 “최근 한 주일에 농사일과 기타 부업을 포함하여 몇 시간 정도 일하였는가”에 대한答을 조사 前週의 노동시간에 사용하였다.

각 응답자들은 조사 前日 (1980년 11월 24일부터 1980년 12월 21일 중의 하루)의 하루 일과를 오전, 오후, 저녁 식사후로 나누어 어떤 일을 하였는가에 답하였다. 이때 농사일 또는 부업이나 就勞事業에 각 1점씩을 주어 모두 3점 만점으로 계산하였다. 이 점수가 조사 前日의 경제활동 지수로 사용되었다.

결국 경제활동성향 지수는 100점 만점의 척도로 구성된 셈이다. 이 척도는 현재의 상태만을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후부터 조사시점까지의 각 부인의 경제활동 성향을 나타내는 점수라고 할 수 있다.

育兒活動性向 指數는 ① 아이를 낳은 후의 育兒活動 ② 조사 前日의 育兒活動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이를 낳은 후의 育兒活動은 ①일은 하

지 않고 아이만 돌본 경우 (3점) ② 일을 하면서 아이를 돌본 경우(2점) ③ 부인이 일을 때他人이 돌보기도 하고 부인도 돌보면서 일한 경우 (1점) ④ 일을 할 때他人이 돌보고 부인은 일만 한 경우(0점)의 4경우로 나누어 0~3점 尺度로 만들었다. 또한 조사前日의 오전과 오후에 부인이 직접 아이를 돌보는 경우에 각각 1점을 주어 0~2점의 尺度를 만들었다.

이를 사용하여 育兒活動性向指數는

$$\text{育兒活動性向指數} = \left( \frac{\text{아이를 낳은 후의 育兒活動}}{3} + \frac{\text{조사前日의 育兒活動}}{2} \right) \times 50$$

과 같이 만들어져 0~100점의 척도가 되었다. 이 때 점수가 높으면 부인의 결혼생활 중 育兒活動의 性向이 높았음을 나타내고 있으며, 점수가 적으면 育兒活動性向이 낮았음을 의미한다.

### 3. 獨立變數

본논문에서는 7개의 獨立變數를 사용하였다. 이들 변수는 부인의 個人的 特性에 대한 것과 부인이 속한 농가의 特性에 대한 것으로 나누어 진다. 농가의 특성은 부인의 경제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는 耕地規模(경제활동의 需要變數)와 가구내 勞動力(경제활동의 供給變數), 또한 부인의 育兒活動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가구내 幼兒의 數(育兒活動의 수요변수)와 가구내 幼兒를 돌본 사람의 수(育兒活動의 공급 변수)로 나누었다. 부인의 개별적 특성은 부인의 나이, 教育水準, 都市經驗度 등으로 나누었다. 이들 개별적 특성은 농가특성을 나타내는 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를 통제하는 데 쓰여질 것이다.

농가의 경지규모는 100평을 단위로 조사 당시의 논 밭 등 경작하고 있는 농지의 넓이로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농가의 노동력은 농가에 동거하는 成員들의 性과 연령에 따라 다르게 평가되었다. 이들 노동력 환산 계수는 나라마다 또는 연구자마다 다르게 사용되고 있다(Cho 1963, p. 71와 p. 74; 人口問題研究所 1971, pp. 30-31). 본연구에서는 농수산부 농가경제조사에서 쓰는 方式을 사용하였다.<sup>5</sup>

表 6 勞動能力 換算系數

性別	나이							66세 이상
	10~14	15~16	17~19	20~25	26~30	31~35	36~40	
남 자	.3	.6	.8	1.0	.8	.6	.3	
여 자	.2	.6	.6	.8	.6	.6	.2	

資料 : 농수산부 경제통계 담당관실, 농가경제 및 농산물생 가비 조사항목 분류부호 설명, 1979, p. 27.

농가의 노동력을 평가할 때 신체적으로 노동능력이 없거나 학교에 다니므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다거나 하는 사항은 고려치 못하였다.

育兒活動의 需要變數는 가구내에 살고 있는 5세 이하의 幼兒의 수로 표시되었으며 育兒活動의 供給變數는 유아를 뱉 부인의 자녀수에 부인의 시어머니, 어머니, 시할머니, 시외할머니를 더한 수로 표시되었다. 여기에서는 가족구성원 중에서 育兒活動의 실제 담당자들이 누구일 것인가를 差別的으로 파악치 못한 限界가 있다. 주부들보다 나이가 많은 시어머니와 주부들의 子女들을 모두 같은 育兒勞動力を 가진 것으로 평가하였다.

부인의 개별적 特性 중에서 부인의 나이는 우리 나라의 세는 나이로 표시되었고, 부인의 學歷은 無學(0점), 國民學校 중퇴 또는 졸업(1점), 中學校 중퇴 또는 졸업(2점), 高等學校 중퇴 또는 졸업(3점), 專門大 졸업 이상(4점)을 주어 0~4점의 尺度로 구성되었다.

또한 부인이 1년 이상 산 곳을 물어 보아 서울인 경우(1점) 부산(2점), 인천·대전·광주·대구(3점), 市(4점) 邑(5점), 面地域(6점), 없는 경우(7점)을 주어 1~7점의尺度를 구성하였다 2곳 이상에서 살았으면 都市性이 높은 곳을 택하여 적은 점수를 주었다. 이것은 같은 都市經驗이라도 도시의 수준에 따라 都市性이 부인에게 다르게 경험되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 취해진 것이다.

### III. 研究 結果

#### 1. 勞動力配分의 일반적 경향

〈表7〉에는 育兒負擔이 있는 부인들(集團A)과 育兒負擔이 없는 부인들(集團B)간에 경제활동성향의分布가 나타나 있으나 대체로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Gamma相關係數도 正의 방

구분	지수	0	1~19	20~39	40~59	60~79	80~100
集團 A		2.5%	6.0%	45.9%	33.3%	4.4%	6.9%
集團 B		1.7%	2.5%	50.4%	36.0%	5.3%	4.2%

$\chi^2$ 有意度=.0032  
GAMMA=.039

集團	指數	단위 : %					
		0	1~19	20~39	40~59	60~79	80~100
集團 A		27.5	8.3	44.4	11.4	1.9	6.5
集團 B		30.8	10.8	55.8	1.8	0	0.9

$\chi^2$ 有意度=.0000  
GAMMA=-.232

향이진 하나 극히 미약한 數值(0.039)로 나타나고 있어 사실상 체계적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表8〉에는 集團간에 育兒活動性向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데 감마(gamma)相關係數가 -0.232로 나타나 育兒負擔이 있는 부인들에게는 높은 育兒活動性向이 보이고 있다. 集團B는 논리상 자기의 자녀 중 1~5세의 동거하는 아이가 없으므로 50% 이상 나오지 않아야 될 것이나 다른 집의 아이를 돌본다거나 6세 이상의 아이를 돌보는 경우에도 育兒로서 답한 경우가 있어 50% 이상이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表9〉에는 본연구에서 사용하는 모든 變數에 集團간의 差異를 보이고 있으며 兩集團에 거주하는 부인들의 경제적 조건(경지규모와 노동력)에는 有意한 차이가 보이지 않았다. 양집단이 無作爲的으로 추출되었다는 것을 가정하면 幼兒의 同居 여부가 가구의 경제적 조건에 영향을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쉽게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경제활동 성향이나 育兒活動性向 및 부인의 개별적 특성에 有意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부인의 教育水準이나 부인이 경험한 都市性은 差異가 미약하여 이것이 從屬變數에 차별적인 영향을 준 것이라고 생각하기 곤란하다. 이에 따라 이후의 분석에서는 주로 부인의 나이를 통제하여 獨立變數와 從屬變數와의 관계를 살펴 보겠다.

表 9 集團別 각 變數들의 平均值

구 분	변 수	경济 활동 성향(지수)	育兒活動 성향(지수)	경지 규모(백 평)	노동력(남자성인)	育兒 노동력(人)	부인의 나이(年)	부인의 교육수준***	부인의 경험한 도시성***
集團 A		71.5	29.7	39.7	3.0	2.0	36.5	2.2	5.0
集團 B		45.4	22.5	34.2	2.9	2.7	48.4	2.1	5.2
평 均 差		26.1**	7.2*	5.5	0.1	-0.7*	-11.9*	0.1*	-0.2**

\* 0.01 수준에서 有意 (T검증)

\*\* 0.05 수준에서 有意 (T검증)

\*\*\* 序列尺度이나 等間尺度로 간주하여 평균을 내고 그 差를 검증하였음.

集團A와 B의 經濟活動 性向은 비슷하게 분포되었으나 그 平均은 A가 높게 나왔으며 育兒活動 역시 A에서 높게 나왔다. 集團A에서는 經濟活動性向이 높아짐에 따라 育兒活動性向은 낮아지는 경향(Pearson Correlation=-.029)이 있으나 有意性檢證에서는 실패하였다. 集團B에서는 피어슨 相關(Pearson Correlation)이 .089가 나왔으나 이것 역시 有意性檢證에서 실패하여 당초 예상한 경제활동과 育兒活動이 負의 상관을 보이리라는 가정이 뒷받침되지 못했다. 集團A가 集團B보다 經濟活動과 育兒活動에서 높은 주요 이유 중의 하나는 부인의 나이에 따른 것일 가능성이 많다. 부인의 나이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에 모두 영향을 주므로 外生變數(exogeneous variable)로써 통제되어야 하겠다.

## 2. 經濟活動 性向의 相關值

### 가. 耕地規模

育兒負擔이 있는 부인에게는 .323의 높은 상관을 보이고 있으나 육아부담이 없는 부인에게는 有意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는 부인의 特性(나이, 교육수준, 경험한 都市性 수준)을 1차, 2차로 통제하여도 같은 결과가 반복되고 있었다. 이는 경지규모가 크면 클수록 幼兒를 가진 부인은 經濟活動의 성향이 높으며 부인의 개인적인 특성에 따라 생긴 것이 아니라고 家口의 特性에 따라 발생한 것을 의미하다.

### 나. 家口의 勞動力

가구의 勞動能力은 본조사에 의하면 부인의

경제활동 성향과는 전혀 체계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集團에 관계없이 부인의 개별적 특성을 통제하여도 체계적인 관계는 나타나지 않았다. 즉 가구에 노동력이 풍부할수록 부인은 經濟活動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뒷받침해주지 못하고 있다.

### 다. 幼兒數

集團A에서는 경제활동 성향과 有意한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으며 集團B는 幼兒가 없는 부인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관계가 나오지 않았다. 즉 유아의 수가 많다고 해서 부인이 아이를 더 많이 돌본다는 假定은 뒷받침되지 못했다.

### 라. 育兒 勞動力

피어슨 相關에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變數를 序列化시켜 켄달(Kendall) 相關係數를 내본 결과 集團A와 B에서 모두 正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sup>6</sup> 특히 集團A에서 약간 높은 관계를 보이고 있었다. 이는 가구내 아이를 둘 를 대치할 수 있는 수함이 있으면 부인은 經濟活動에 더 많이 참여 했다는 말이 된다.

### 마. 부인의 개인적 特性

集團A에서는 나이가 적을수록 教育水準이 높을수록 都市性이 낮을수록 경제활동을 많이 하고 있으며 集團B에서는 부인의 나이만이 관련되고 나머지는 관련이 없었다.

## 3. 育兒活動의 相關值

### 가. 耕地規模

表 10 經濟活動性向의 單純相關 (Pearson 相關係數)

집단구분	변수	耕地規模	勞動力	幼兒數	育兒勞動力	부인의 나이	부인의 教育水準	부인의 경험한 都市性
集 團 A		.323*	N.S.	N.S.	N.S.	-.119**	.108**	.227*
集 團 B		N.S.	N.S.	—	N.S.	-.109*	N.S.	N.S.

\* 0.01에서 有意

\*\* 0.05에서 有意

表 11 育兒活動의 單純相關(Pearson 相關係數)

集團 集團	변수	경지 규모	노동력	幼兒數	育兒勞動力	부인의 나이	부인의 교육수준	부인이 경험 한 도시성
集團 A		N.S.	- .158*	N.S.	- .106**	N.S.	N.S.	N.S.
集團 B		N.S.	N.S.	-	N.S.	.084*	N.S.	N.S.

\* 0.01 수준에서 有意

\*\* 0.05 수준에서 有意

集團A와 B에 모두 有意한 관계가 나오지 않았고, 부인의 개인적 特性(나이·교육수준·都市性)에 따른 變數들을 하나씩 통제하여도 有意한 관계가 나오지 않았으며 두개씩 조합을 만들어 통제하여도 有意한 관계는 나오지 않았다. 그러므로 부인의 育兒活動은 가구의 경지규모와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 나. 勞動力

育兒負擔이 있는 부인들은 가구내 노동력이 클수록 育兒活動을 적게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相關係數는 .15의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부인의 개인특성을 통제하여도 비슷한 결과가 나오고 있다. 또한 集團B에서는 有意한 관계가 보이지 않으며 부인의 개인적 특성을 통제하여도 마찬가지 결과가 나오고 있다.

#### 다. 幼兒數

유아가 많다고 해서 부인의 幼兒負擔이 늘어나는 것 같지는 않다. 이는 부인의 특성을 고려하여도 마찬가지다. 이로 미루어 보아 幼兒의 有無가 중요하지 그 많고 적음은 부인의 育兒活動의 변화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 라. 育兒勞動力

集團A에서 育兒勞動力이 많을수록 부인의 育兒活動 참여가 낮아지고 있으며 부인의 개인적 특성을 통제하면 相關係數가 -.19에서 -.21 수준으로 높아지고 있었다. 이는 育兒勞動力의 다소가 부인의 育兒負擔에 상당한 정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마. 부인의 개별적 特性

이는 集團A와 B에 모두 有意한 관계를 보이지 못하거나 미약한 相關關係만을 나타내고 있을 뿐이다.

#### 4. 勞動力 配分의 決定值

부인의 경제활동 성향은 單位 労動力當 토지부담, 단위 노동력당 育兒부담, 부인의 나이 등 3가지 변수에 의해 집단A에서는 변량 5.4%가 설명되고 집단B에서는 1.9%만이 설명되고 있다. 각 變數別 相關度도 집단에 따라 다르다. 즉 幼兒를 가진 부인들의 경제활동 성향은 단위 노동력당 토지부담과 .15상관치를 보이고 있다. 이는 집단B의 .05의 상관치보다도 높게 되어 있다. 부인의 나이와 경제활동 성향과도 집단A에서 더 높게 상관되어 있었다.

단위 노동력당 육아부담은 집단A에서 단순 상관에 의하면 .01의 相關值(Eta)를 보이고 있으나 나머지 2개의 변수가 통제되므로 .06(Beta)으로 상관치가 높아졌다. 이와 같은 결과에서 幼兒가 있는 부인들의 경제활동은 가구내 단위 노동력에 대한 土地壓力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부인의 나이는 경제활동 성향에 집단A에 대해서 .18의 상관치를 나타내고 있으며 집단B의 .13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인의 나이와 단위 노동력당 토지부담의 變數는 育兒負擔이 있는 부인들(집단A)에게 더 설명이 잘되고 있다. 부인들의 경제활동은 아직까지 단위 노동력당 토지 압력에 의해 직접설명되기 보다는 育兒負

表 12 集團別 經濟活動 性向에 대한 多分類分析

	집단A 평균과의 차이	Eta Beta	집단B 평균과의 차이	Eta Beta
단위노동력당 토지부담 ( 경지규모(백평) ) ( 노동력(인) )	① 낮다(7.9이하) ② 조금낮다(8.0~9.9) ③ 중간(10.0~1.19) ④ 조금높다(1.2~1.39) ⑤ 높다(1.4이상)	-23.1 -32.4 70.1 -31.6 14.9	.16 .15	-7 -4.1 -2.2 -1.0 3.5
단위노동력당 育兒부담 ( 유아수(인) ) ( 육아노동력(인) )	① 낮다(.59이하) ② 조금낮다(.6~.69) ③ 중간(.7~.79) ④ 조금높다(.8~.89) ⑤ 높다(.9이상)	3.8 24.8 — -3.3 -36.9	.01 .06	
나이	① 30세이하 ② 31~40세 ③ 41~50세 ④ 51세이상	58.4 -25.0 -18.4 -40.7	.17 .18	-2.0 13.0 .6 -6.0
전체平均 R <sup>2</sup> (R)		71.8 0.54 (.232)		45.5 .019 (.139)

表 13 연령별, 노동력단위당 토지부담별 經濟活動性向 변화

노동력 단위 당 토지부담	집단	구분	나이의 변화			
			① → ② → ③ → ④	30세이하	31~40세	41~50세
① 낮다	A	경제활동 (育兒活動)	+ + + (+ +)	(- -)	—	—
	B	경제활동	+ + +	—	—	—
② 중간	A	경제활동 (育兒活動)	— — (+ +)	(— — —)	(+ + +)	—
	B	경제활동	— —	— —	—	—
③ 높다	A	경제활동 (育兒活動)	— (-)	(— —)	(+ + +)	—
	B	경제활동	+ + +	+ +	—	—

\* 변화의 방향을 +와 -로 나타냈으며, 변화의 정도에 따라 +와 -의 수를 결정하였다.

擔과 부인의 나이에 따라 差別的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다. <表13>에서는 부인들의 나이가 변함에 따라 또한 가구내 단위노동력당 土地壓力이 차이가 남에 따라 경제활동 성향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나타낸 것이다. 사회의 일반적인期待는 부인에게 우선 가사일이나 育兒의 일을 돌볼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나이에 따라, 가구의 經濟事情에 따라 부인들은 경제활동에 差別的으로 참여한다. 집단A와 집단B를 비교해 보면 나이가 적을수록 토지압력이 적을수록 비

슷한 變化方向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50세 이상의 부인들과 단위노동력당 토지부담이 높은 곳에서는 집단별로 또는 경제활동과 育兒活動 사이에 변화의 차이를 나타내 주고 있다. 즉 집단B는 50세를 고비로 경제활동이 약간 줄어들고 반면에 育兒活動이 늘고 있다. 또한 단위노동력당 토지부담이 높을 경우에도 집단A는 50세까지 경제활동의 성향이 약간씩 변하다가 50세 이후에 급격히 줄어드는 반면 집단 B에서는 50세까지 급격히 經濟活動이 늘고 50세 후에는 약간씩 줄

表 14 집단별 育兒活動性向에 대한 多分類分析

		집단A 평균과의 차이	Eta Beta	집단B 평균과의 차이	Eta Beta
단위당 토지부담	① 낮다 ② 조금낮다 ③ 중간 ④ 조금높다 ⑤ 높다	-2.4 .7 .5 -.3 2.2	.06 .07	1.1 1.2 -3.7 1.1 -1.0	.07 .08
단위당 育兒부담	① 낮다 ② 조금낮다 ③ 중간 ④ 조금높다 ⑤ 높다	1.0 9.9 — -7.5 2.2	.15 .16		
나이	① 30세 이하 ② 31-40세 ③ 41-50세 ④ 51세 이상	.0 -.3 1.7 -1.3	.04 .03	-5.1 1.5 -2.9 2.8	.14 .15
전체평균 $R^2$ (R)		29.6	.029 (.170)	22.5	.026 (.163)

어드는 경향이 보인다. 또한 집단 A에서도 50세 이전에 經濟活動은 조금씩 변하게 되나 育兒活動은 대폭 줄어들고 50세 후에는 經濟活動과 育兒活動은 서로 대체된다. 즉 나이는 50세를 전후하여 育兒活動이 늘어나나 그 이전의 나이에서는 育兒 이외의 활동이 더 우선권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表14〉에는 集團別로 단위 노동력당 土地負擔, 단위 노동력당 育兒負擔, 부인의 나이의 育兒活動性向에 대한 영향력을 나타낸 것이다. 단위 노동력당의 育兒負擔이 幼兒를 가진 부인들의 育兒活動과는 .16의 상관치를 가짐으로써 세 개의 變數 중 영향력이 가장 높다. 또한 단위 노동력당 토지부담이나 부인의 나이는 집단 A의 育兒活動을 별로 설명치 못하는 변수로 드러난다. 상기 3개의 變數는 집단 A의 育兒活動의 變數의 2.9%만을 설명해 줄 뿐이다. 그러나 집단 B의 경우 부인의 나이는 育兒活動과 .15의 상관치를 보이고 있다. 또한 집단 B에서는 단위 당 토지부담과

부인의 나이가 育兒活動의 2.6%를 설명하고 있다.

이상의 고찰에서 經濟活動이냐 育兒活動이냐에 따라, 集團에 따라 獨立變數의 영향력이 달라지고 있음을 보았다. 집단 A에서의 경제활동에 대해서는 단위 노동력당 토지부담과 부인의 나이가, 育兒活動에 대해서는 단위 노동력당 育兒負擔이 영향력을 높게 미치고 있다. 집단 B에서의 경제활동에 대해서는 부인의 나이가, 育兒活動에 대해서도 부인의 나이가 영향력을 높게 미치고 있다.

즉 집단 B에서는 부인의 나이에 따라서만 경제 및 育兒活動이 설명되고 있었다. 그러나 幼兒를 가진 부인들은 나이는 물론 가구내 經濟活動 變數나 育兒勞動力 상황에 따라 민감하게 변하고 있었다. 즉 전통적인 역할인 育兒活動과 새로운 활동인 經濟活動이 가구내 경제적, 인구학적 상황에 따라 변하고 있었다.

## IV. 結論

지금까지 幼兒가 있는 農家主婦와 幼兒活動의 성향이 어떻게 다른가를 살펴보았다. 즉 幼兒가 있는 농가주부들의 經濟活動에 대해서는 부인의 나이와 가구당 토지에 대한 노동력의 압력이 중요 變數로 등장하였다. 주부의 育兒活動은 가구당 유아에 대한 부담이 중요 變數로 등장하고 있었다. 또한 幼兒가 없는 농가주부들에게는 부인의 나이만이 經濟活動과 育兒活動 性向에 대해서 중요 變數로 등장되고 있었다.

본연구에서는 부인들의 활동 중 經濟活動과 育兒活動을 상호 경쟁하는 관계로 보았으나, 여기에 家事活動이 포함되어야 상호 경쟁하는 모습이 보다 뚜렷해 질 것으로 보인다. 즉 경제활동과 家事活動이 같은 수준에서 경쟁을 벌이며 育兒活動은 家事活動에 종속적인 입장에서 변할 것이다. 또한 부인의 活動을 결정하는 것에는 태도나 가치의 變數가 개재될 것이고 특히 남편의 부인에 대한 태도나, 가족들의 부인에 대한 기대나 태도가 중요 變數가 될 것이다. 그외에도 부인의 家事活動이나 育兒活動을 본질적으로 변화시키는 탁아소 운영, 家電製品의 보급을 고려하여야 부인의 活動選擇 범위가 보다 뚜렷해 질 것으로 보인다. 본연구에 포함된 變數가 설명치 못하는 부분은 이상의 變數들을 포함시키면 보다 설명이 잘될 것으로 보인다.

本論文은 이와 같이 여러 가지 결점으로 그阙이를 다소 감소시키긴 하였으나 우선 農家主婦의 가장 큰 生活領域 중의 하나인 經濟活動과 育兒活動을 설명하고, 농촌 주부들의 役割構造의 변화를 이해하는데 기여하리라고 생각한다.

- 註 1. 家口內의 勞動力이 줄어들고 가구당 耕地負擔이 늘어 난 것을 감안하면 女性的 労動強度도 매년 높아졌을 것이다.
2. 농가주부의 生活時間은 분석한 것은 한국경제개발협회, 「부녀복지 장기계획수립을 위한 基礎資料 조사연구」, 보건사회부, 1980, pp. 22-23과 李良厚, "새마을 成功部落의 農家生活 診斷에 관한 研究", 「농업개발연구보고」, 제 1권 제 1호, 1980, p. 183 참조.
3. 調査期間이 農閑期에서 主婦들이 經濟生活과 育兒活動에 대한 선택의 壓力を 약하게 느꼈을 것이다. 여러 變數들과의 相關關係도 農繁期 때보다 약하게 나오고 經濟活動性向指數도 낮게 나올 가능성이 많다.
4. 農家經濟調查의 표본 추출절차는 농수산부, 「농가경제 조사결과보고」, 1979, pp. 27-29를 참조. 이에 대한 問題點은 潤性敘述의 「농업통계개선에 관한 연구」, 한 국농촌경제연구원, 1980, pp. 84-105를 참조. 본연구의 표본 추출절차와 문제점은 康喆仁, "現地調查에서의 研究者와 面接員과 農民", 「韓國文化人類學」 제 12집, 1980, pp. 115-142와 Hunter, Stanley, et. al., "A Study of Danographic, Economic, and Technological Interaction at the Family Level in Korea," presented at the Workshop on "Methodological Approaches to Research on Fertility Impacts of Development," Held in Bangkok, Thailand, April 10, 1981. 참조.
5. 농수산부에서 사용하는 勞動力換算計數는 나이와 性別에 따라 세밀하게 분류되어 우리 나라 사람에 맞는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農家賃料金의 男女比와 환산계수의 比가 일치하지 않고 社會의 規範에서 評價하는 能力과 약간 상치되기는 하나 다른 환산계수가 더 좋은 것이 없어 위의 것을 사용하였다.
6. 經濟活動性向에 대한 캔달相關係數(單純)는 다음과 같다.

集團 區分	경 지	노동 력	幼兒 數	育 兒	부인의 나 이	부인의 教育水 準	부인의 都市性
	年 齢			勞動力			
A	- .064**	- .134*	N.S.	.168*	- .089*	N.S.	N.S.
B	N.S.	N.S.	-	.043**	- .091*	N.S.	N.S.

\* 0.01 水準에서 有意.

\*\* 0.05 水準에서 有意.

### 参考文獻

- 빈센트, S. R. 브란트, 1975, 「韓國의 村落」, 金瑣奉譯, 人口問題研究所, 1971, 「移動人力의 農村開發에 미치는 영향과 그 對策」, 科學技術處.
- 車培根, 1972, 「社會統計方法」, 世英社.
- Cho, Yong Sam, 1963, "Disguised Unemployment," in *Underdeveloped Areas with Special Reference to South Korea Agriculture*, Berkeley and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Kallgren, Joyce K., 1980, "Women in Asian Cities, Their Political and Economic Roles: Research Problems and Strategies," in *Asian Women in Transition*, Sylvia A. Chipp and Justin J. Green ed., University Park,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Press, pp. 16-35.
- Maret, Elizabeth and Lillian Chenoweth, 1979, "The Labor Force Patterns of Mature Rural Women," *Rural Sociology*, 44 (Winter), pp. 736~753.
- Nie, Norman H. et. al. 1975, *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 New York, McGraw-Hill Book Company.